

#아산서원
#제11기
#VOYAGE



#아산서원

#제11기

#VOYAGE



아산_정주영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 선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ASAN_ACADEMY

교육목표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서원(書院)교육과 현대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원생 전원이 아산학사(기숙사) 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도록 합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 원생들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유명 싱크탱크와 비영리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문 소양 #공동체 #국제 감각





강환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

#장래희망 경제학 교수

#포부 Invictus



고세영

#학력 한양대학교 사학과 졸업 /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국제
관계학과 졸업

#장래희망 동아시아지역 전문가

#포부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
겠습니다!





공도아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포부 긍정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
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김미나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과 / 경영학과 4학년
#장래희망 관광 커뮤니케이터
#포부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김나윤

#학력 연세대학교 정보·인터랙션
디자인과 4학년
#장래희망 UI / UX 디자이너
#포부 항상 열정을 잃지 않겠습니
다.



김소연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심
리학과 3학년
#장래희망 밝음을 끼치는 큰 사람
#포부 겸손히 배우고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운호

#학력 중앙대학교 중국어문학과 /
도시시스템공학과 4학년

#장래희망 도시 공공 공간 설계가

#포부 저라는 사람을 출력해 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재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
과 / 국제사무학과 4학년

#장래희망 교육정책 연구원

#포부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원생
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학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장래희망 사내 커뮤니케이션 전
문가

#포부 뒤돌아 보지 않아도 항상
뿌듯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목종군

#학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정
치외교학과 3학년

#장래희망 통일·외교정책 전문가

#포부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키
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지원

#학력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장래희망 마음 따뜻한 교육자

#포부 매 순간을 나를 깨우는 시
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손은유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장래희망 당당하고 솔직한 사람

#포부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크겠습니다.

박희재

#학력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장래희망 대중지향적 저널리스트

#포부 세계로 묵묵히 나아가는 '아
산지식'이 되겠습니다.



심경혜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
어·문화학과 / 경제학부 3학년

#장래희망 국제관계 전문가

#포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감
사하는 마음으로!



이규민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
#장래희망 국제개발 전문가
#포부 감사한 마음으로 매사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민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 컴퓨터공학부 3학년
#장래희망 국제기구 IT 전문가
#포부 고민은 치열하게, 행동은 자신 있게!



이다솜

#학력 덕성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3학년
#장래희망 따뜻한 프로그래머
#포부 일 년 뒤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되기를!



이소영

#학력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포부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재준

#학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장래희망 외교관
#포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현구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장래희망 개발정책 전문가
#포부 뜻을 바로 세우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이지혜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 경영학과 졸업
#장래희망 예술 공유 플랫폼 창업
#포부 사람과 세상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겠습니다.



#아산서원

#제11기

#THE ONE AND ONLY

#졸업

#조선왕조실록 #한국 사람 만들기 #천자문과 격몽요결 #논어 #맹자
#플라톤, 파이드로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문학 속의 수사학
#우리말 글쓰기 #마키아벨리, 군주론 #헨리 키신저, 세계질서 #경제학 탐구
#유희준, 서유경문 #구메 구니타케, 특명전권대사 미구희람실기
#유어예: 예술에 노닐다 #춤으로 나를 꽃피우다

#인문과목



『조선왕조실록』

오백 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공도아

이남희 교수님의 『조선왕조실록』 수업을 듣기 전 나에게 역사는 수많은 사건의 순서와 연대를 외워야 하는 암기 과목이었다. 그래서 내가 알던 조선의 역사는 매우 단편적이고 지루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수업 후, 역사는 알면 알수록 역동적이고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시대별, 인물별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열람할 수 있었고, 직접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조선의 또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나에게 조선은 하나의 동떨어진 과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살아있는 역사다.

#500년의 기록 #조선으로 시간여행





한국 사람 만들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박희재

'우리'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우리'란 정확하게 어떤 범주까지 포괄하는지 모호하기만 하다. 한국어를 못하는 재미 교포도 한국 사람일까? 그렇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함재봉 원장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 수업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이었다. 정체성은 역사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역사와 그에 영향을 끼친 중국, 일본, 미국과 소련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우리'를 알기 위해 '그들'을 공부한 셈이다.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 그 길 위에서 문득 생각했다. 이것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 자체가 한국 사람이라고.

#자국 성찰 #우리가 누구 #정체성



『천자문』과 『격몽요결』

이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상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랜 시간을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보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이이 선생님이 제시한 삶의 정도(正道)를 읽으며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런 의미에서 김석근 부원장님과 함께 『격몽요결』을 읽는 과정은 비판의 시간이었고 공감의 시간이었다. 물론 지금도 확실한 답은 찾지는 못했지만, 고민하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매주 제출하는 보고서를 위해 끙끙거리는 나 자신이 고마웠다. 고민의 흔적 위에서 문득 스스로가 성장했음을 발견했다.

#매주 일요일 #보고서로 #분태우다





『논어』

꿈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이상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승리보다는 패배의 역사이다. 역사 속 세상을 바꾼다던 이들도 어느 순간 홀연히 사라지곤 하지 않았던가. 소진형 교수님과 함께 읽어나간 『논어』는 위대한 학자였던 공자보다 실패한 학자였던 공자의 기록으로써의 『논어』였다. 『논어』 속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그의 이상과 좌절의 한숨이 그대로 살아 숨 쉬었다. 나의 꿈을 지켜나간다는 것.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 낭만적이지만, 않을 것이다. 『논어』가 지금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그 좌절을 온몸으로 살아간 공자의 발자취 덕이 아닐까?

#논어는 지루하다? #동양의 고전 #시대를 관통하는 #생동감
#공감





『맹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김소연

『맹자』를 처음 읽었을 때의 당혹감은 명료하고 합리적인 언어로 쓰인 글이 좋다고 믿었던 나의 편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이치역 교수님과 함께 읽은 『맹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대부분의 학술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었다. 정답보다는 질문을 통해, 정교한 논리보다는 비유를 통해 맹자는 우리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사람에 대한 원생들의 생각은 수 개월의 수업과 인터넷을 통해 전보다 풍부해져 있었고, 그 속에서 나도 더 튼튼한 나만의 인간관을 세울 수 있었다.

#맹자 #사람 #삶의 지혜





플라톤, 『파이드로스』
사랑에 관한 모든 것 #박지원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랑하는 자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좇으며 영혼의 성숙을 이룬다.”라고 했다. 나는 이 대화록 자체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느꼈고, 소크라테스가 대화에서 언급한 ‘Shiver’의 경지를 경험했다. 이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책이 살아남은 이유는 사랑의 담론을 넘어 영혼과 아름다움에 대한 탁월한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읽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는 텍스트였지만 이상원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원생들과 사랑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책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lover vs non-lover #마음속 #흑마궐 #조심해요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권력의 감시와 체제, 그리고 개인 #심경혜

함재봉 원장님께서 질문하셨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individual)’이라는 개념들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신체를 고문하던 과거에서 오늘날 CCTV를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감시하게 된 권력 형태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현한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구조(system)를 설명해냄으로써 현대인의 Individuality를 규정해주었다. 국가와 개인, 효율성과 존엄성, 권력과 자유에 관한 끊임없는 자각과 고민은 원생들에게 주어진 미완의 과제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산서원도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따른다는 #원장님



문학 속의 수사학

A Bit of Jinwoo Experience #박지원

“수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수업은 긴 여정을 떠나 “Find your voice.”라는 답으로 끝맺었다. 김진우 교수님께서 첫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읽어온 수사학에 대한 글을 우리 손으로 찢으라고 하셨다. 그 이후로 모든 수업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꺼내고 피력하는 과정이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 죽음, 진리 등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과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갔다. 한 번도 나에 대해 이렇게 깊게 파고든 경험이 없었기에 매우 소중한 수업이었다.

#O Captain, my Captain! #Farewell #You는 말이 안 돼





우리말 글쓰기

소통의 시간 #정현구

초중고 숙제부터 대학생 때 리포트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글을 써 왔지만, 여전히 나는 글을 쓸 때 두려움이 앞선다. 글쓰기는 그 자체로 철학적 사유이기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수업은 지금까지 어렵게 사유한 나 자신과 다시 한번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장휘 교수님의 글쓰기 지도를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각자의 글을 두고 원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삶과 사유를 경험하였다. 나의 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익숙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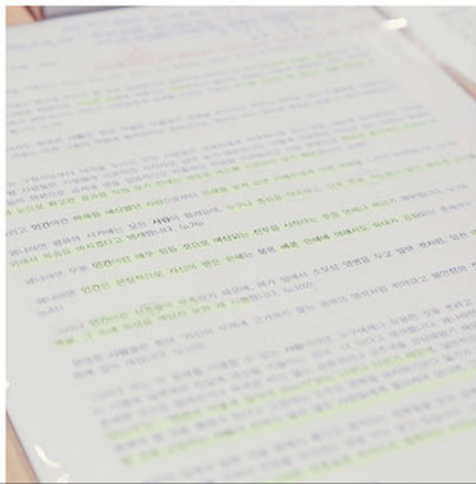
#고통스러운 글쓰기 #다른 삶의 만남 #가장 어려운 자유주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고전을 읽는다는 것 #목종균

고전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정리해놓은 2차 지식에 의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만의 지식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다. 특히 『군주론』과 같이 사람들의 편견에 둘러싸인 책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마키아벨리는 폭력을 사랑하였는가?' '『군주론』은 소수의 약자를 무시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마키아벨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였다. 또한, 김경희 교수님의 수업과 토론을 통해 『군주론』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군주론』의 의미는 분명 우리만의 것이었다.

#마키아벨리의 재발견 #치열한 성찰 #뽕뽕 튀는 토론





헨리 키신저, 『세계질서』 지도와 세계관 #목종균

지도는 나라에 따라 각자의 세계관과 지정학적 관점을 담고 있다. 한국의 지도는 한반도가 중심에 있고, 미국의 지도는 미국이 중심에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이 그 밖에 놓여 있다. 어떠한 지도는 북반구 국가들의 지도와는 다르게 남과 북이 뒤집혀 있다. 지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한 국가가 갖는 문제 인식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한 『세계질서』는 바로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질서를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앞으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행복의 경제학

▪ R. Layard,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2005

-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 관심의 초점을 경제성장에만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가?
-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더욱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음



57



경제학 탐구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경제학 #이규민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준구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특별한 기회였다.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교수님께서는 경제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수업을 통해 원생들은 경제학 지식을 얻었을뿐더러, 경제와 관련된 시사 이슈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인화와 투자의 관계였다. 교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다양한 연구에 기반을 두며 사회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의 매력인 것 같다.

#경제학 #사회를 바라보는 눈



유길준, 『서유견문』
타임 인 조선 #이재준

조선의 지식인들은 개화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유불란, 이현미 교수님의 『서유견문』 수업은 위정척사파부터 급진개화파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이 세계와 만났을 때 보였던 각기 다른 반응들에 대해 배울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나는 위정척사파가 국제적인 질서에 대해 어두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국제법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며 국제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하는 역사가의 오만에서 벗어나, 당시의 치열했던 외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나라면 어땠을까 #드라마 같은 수업 #치열한 외교전 #인식의 전환







구메 구니타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세영

관점의 재정비. 내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수업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이다. 수업 초반에 나는 일본은 근대화 초기부터 제국주의적, 혹은 침략적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책을 접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논평에 대한 이새봄, 김도형 교수님의 피드백과 원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내가 가진 일본에 대한 시선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수업은 감정적인 결론에서 벗어나 사료를 통해 합리적 시선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우리에게 어떤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볼 장기적 과제를 남겼다.

#프레임 깨기 #인생 과제



유어예: 예술에 노닐다
 삶을 즐기는 풍류의 자세 #김소연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과 매사를 즐기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윤희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곱씹을수록 국악과 참으로 닮았다. 예를 들어, 국악에서는 시나위를 비롯한 합주 형식이 발달했으며 독주에서도 국악기는 연주자와 함께하는 호흡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또한, 판소리 관객은 슬픈 장면이라도 추임새를 넣으며 공연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격려된다. 모두 함께 소금을 넣고 강강술래를 하며 우리는 국악과 친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악 속에 담긴 풍류의 자세를 몸으로 직접 배울 수 있었다.

#국악아 #이리 오너라 #내 사랑이로다







춤으로 나를 꽃피우다

온전히 나와 마주하는 시간 #김미나

흔히 현대무용이라고 하면 무용수들이 추는 아름다운 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최보결 교수님과 함께하는 현대무용은 다르다. 전문가만 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추는 것도 아니다. 그저 순간순간의 느낌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잊은 채 자신에게 집중한다. 첫 시간 몸으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라고 하셨을 때 원생들 모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붙었고 더욱 과감하게 나를 표현하며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춤의 학교 #치유 #나와 마주하는 시간



#함재봉 원장님 특강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경숙 이사장님 특강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성기는 리더십>
#박병광 박사님 특강 <중국 현대정치사 들여다보기>
#청샤오허 교수님 특강 <China and NK Nuclear Issues>
#아산 북토크: 토마스 프리드먼
#손숙 선생님 특강 <나의 영국 인생>
#박진 이사장님 특강 <트럼프와 아시아>
#김영석 전 이탈리아 대사님 특강 <서양문명과 이탈리아>
#염세영 작가님 특강 <다산과 시대정신>
#서현 교수님 특강 <한국인의 공간, 건물, 도시>
#최재천 교수님 특강 <사랑의 생물학>

#특강



함재봉 원장님 특강
인문학의 의미 #정현구

숨 막히는 시간이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정치와 경제, 철학의 의미를 논하며 수천 년의 사상적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원장님께서 로버트 케네디의 인디애나폴리스 연설 사례를 통해 수사학의 의미를 강조하셨던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다. “정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들지 않던 연설문이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감동으로 다가왔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앞서서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학도로서 정작 감동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기에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시간이었다.

#인문학의 정의 #감동을 주는 정치



이경숙 이사장님 특강

21명의 원생, 그리고 21명의 리더 #공도아

급변하는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리더십의 정의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사람 수만큼 많으므로 시대에 맞는 리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경숙 이사장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4차 산업의 초연결 및 초지능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타고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훈련으로 만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무 명의 친구, 그리고 스스로 아직 리더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나마저도 삶을 이끄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각자의 비전을 마주할 용기를 얻은 시간이었다.

#리더의 조건 #기업가 정신과 섬김







박병광 박사님 특강

중국 현대사를 통해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다 #박희재

중국,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국가다. 하지만 난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이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박병광 박사님의 특강 덕분에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인물들을 통해 중국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한국 역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특히 부국강병이라는 시진핑의 국정 목표가 가장 흥미로웠다. 이를 통해 사드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한 차원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관계 #중국 속 한국 이야기



청샤오허 교수님 특강

대담하고 솔직했던 한중 비공식 회담 #손은유

청샤오허 교수님께서서는 북핵,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가감 없이 설명해주셨다. 평소 원생들이 모이면 자주 이야기하던 주제였지만 막상 “사드 배치는 중국을 향한 견제이고 한국에 대한 압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한국의 입장을 바로 대변하기가 힘들었다. 단호하게 견해를 밝히셔서 놀라기도 했고, 초빙된 교수님께 반대 어조로 강하게 말할 용기가 바로 생기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솔직한 교수님의 모습에 곧 적응한 원생들은 그간 궁금했던 점을 활발하게 질문하였다. 중국 지식인과 함께 중국을 이해하고 한중 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솔직한 중국의 입장 #한중 관계 #중국 전문가 #상큐(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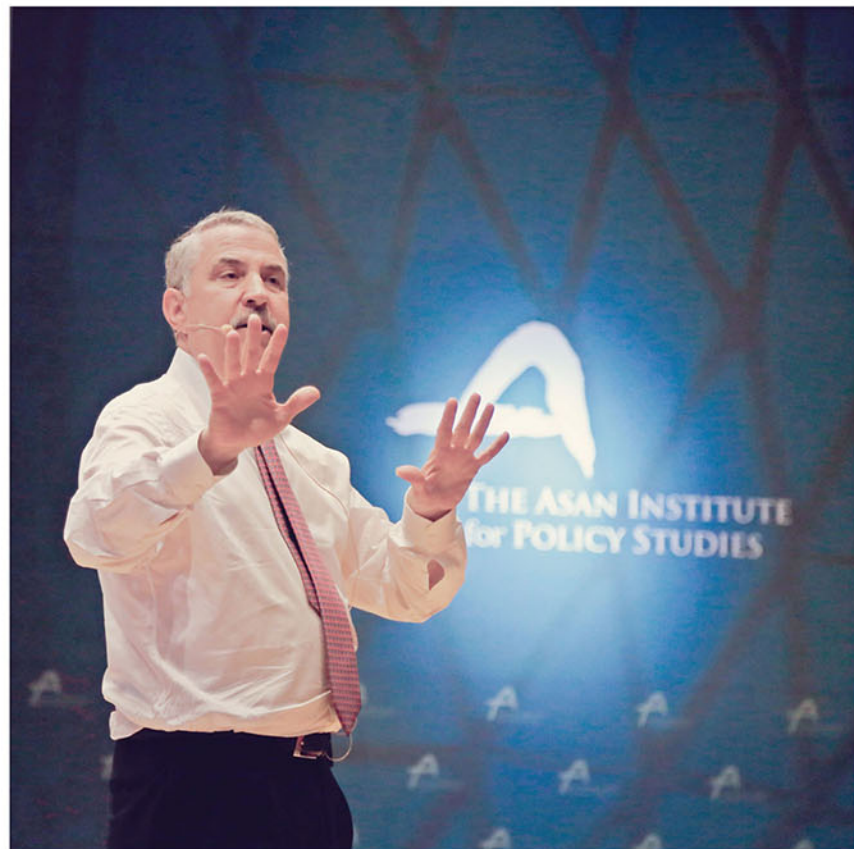


아산 북토크: 토머스 프리드먼

Thank You for Being Here #강환

아산서원은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볼 수 있는 쉼표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저서 *Thank You for Being Late*를 통해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쉼표(Pause)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프리드먼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던 아산 북토크는 바쁜 서원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쉼표가 되었다.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열띤 토론을 하는 원생들의 말을 모두 적어 내려갔던 프리드먼의 프로정신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토머스 프리드먼 #Thank You for Being Actually Late







손숙 선생님 특강

나만의 무대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길 #이다솜

인생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손숙 선생님이 방문해주셨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연기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 마음이 아프면 공연을 보러 가거나 독서를 하라는 말씀이 인상에 남았다. 무대에 서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나만의 무대는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어졌다. 부족하기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부족하다고 생각되기에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배우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돈 벌어서 뭐할래? #좋은 일에 쓸래 #시작은 나로부터







박진 이사장님 특강
한국의 전략은? #손은유

새 정부의 첫 외교 현안, 사드.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박진 이사장님께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의 득실과 미국과 중국의 인식에 관한 명쾌한 강연을 해주셨다. 역동적인 한·미·중의 관계와 각자의 견해 차를 설명해주시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한 중요한 고민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동안 소모임에서 국제 정세 이슈를 자주 다뤘지만 전략적 선택지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번 특강을 통해 국가의 전략적인 입장을 고민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 #전략적 모호성



김영석 전 이탈리아 대사님 특강 이탈리아를 통해 바라본 현대문명 읽기 #정현구

현대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김영석 전 이탈리아 대사님은 문명사적으로 볼 때 유럽 역사의 중심지는 바로 로마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이탈리아는 서양문명과 오늘날 유럽을 형성하는데 르네상스를 비롯해 가장 중요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결국 서구화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많은 유적지지만 기억되던 이탈리아가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손으로 그리는 세계지도 #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연세영 작가님 특강
다산 정약용과 시대정신 #이소영

정약용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차왕』의 연세영 작가님 특강을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다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나라의 공직을 맡으면서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할 줄 알았던 다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보다 백성을 생각했던 그의 정신에 감명을 받았다. 분명 여유롭거나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끈기와 열정을 잃지 않았던 다산의 정신은 지금 우리도 배워야 할 시대정신이였다. 또한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시는 작가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정신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차왕 #피아노 치시는 모습이 제일 멋져요 #도전정신



서현 교수님 특강
건축과 공간, 그리고 사회 #이지혜

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건물이었다. 어떻게 건물을 짓고 그 안의 공간을 창조하는지가 건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축을 비롯해 공간이 조직된 방식은 사람이 조직된 방식, 즉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도시와 공간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다는 서현 교수님의 말씀은 건축에 대한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었다. 특히 단순히 땅이 부족해서 지었다고 생각한 아파트가 한국 사람들이 밀봉된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은 굉장히 새로웠다. 더 넓게 보는 눈을 배우는 가슴 뛰는 시간이었다.

#건축을 알아? #알아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건축 사전





최재천 교수님 특강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이규민

생태학과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님은 특강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다뤄주셨다. 사랑을 하는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사랑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특히 성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며 현재 인간의 결혼 제도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생산된 관습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흥미로웠다.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도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된 느낌이었다. 사랑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생물학적 사랑 #성 선택 #DNA 헤드쿼터

#실용영어 #실용중국어 #전통예절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사물놀이 #봉산탈춤 #농촌봉사활동 #팀스포츠 #문화체험
#안동/울산 문화기행 #작은 음악회 #자치회

#교양과목



실용영어

과즙 100%, 자신감 100% #김재환

Danton Ford 교수님과 Paul Kim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실용영어 수업은 알차다 못해 나로 하여금 순도 100%의 오렌지 주스를 떠올리게 했다.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좌절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던 Paul Kim 교수님께서서는 이메일과 자기소개서 첨삭 등 밀착 지도를, 특유의 재치와 자상한 경청을 해주셨던 Danton Ford 교수님께서서는 토론의 핵심인 자신감 향상 지도를 통해 그야말로 '실용'이 100% 가득한 수업을 해주셨다. 두 교수님의 수업은 원생들이 외국에서도 언어의 벽을 넘어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주스 #맛있다 #영어도 #맛있다





**실용중국어**

挑战, 汉语! #이소영

친숙하면서도 낯선 언어, 중국어. 서원에서 정식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성조가 가장 어렵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지만, 발음부터 차근차근 말하고 듣기 시작하니 훨씬 실용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접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부터 중국 고대 시, EXO 노래까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중국 문화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매번 자신 있게 “挑战!(도전!)”을 외치며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수요일이 기다려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에 도전하고 싶게 만들어 준 수업이었다.

#워시화 티아오젠 #중국어는 지우 선생님께 #언어는 말하기부터 #세세!



전통예절 교육
한복의 멋 #이재준

눈앞에서 청실과 홍실로 엮인 한복이 나풀거린다. 앞에 나온 원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옷매무새를 여며가며 한복을 다 입었을 때, 그 고운 자태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미미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살구색 한복은 오히려 넉넉한 인심을 품고 온 화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 의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우리는 한복의 멋에 줄곧 감탄하면서 서로의 한복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칭찬해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뜻밖의 어울림 #전통 스웨거 #내가 바로 한복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Manners Maketh Man #이지혜

외국인과 명함을 주고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립스틱 색깔은? 식사가 끝난 후 포크와 나이프는 어떻게 놓아야 할까?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매너 교육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위와 같은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해주었다. 또한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잊기 쉬운 매너를 머리와 몸으로 익혀보면서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할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알짜배기가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비즈니스 꿀팁 #와인 좀 마셔본 원생





사물놀이

너와 내가 하나의 울림 되어 #심경혜

빹빹한 아산서원 인문교육과정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된 사물놀이 수업에서 우리가 연주한 장단은 어떤 이에게 그저 어설픈 초보자들의 연주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그 장단은 매주 기대되는 흥겨운 스트레스 해소이자,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선조들의 가락, 그리고 너와 내가 조금씩 함께 다듬어나간 하나의 울림으로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각자 다른 소리를 우리라는 하나의 호흡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 12기 설명회 길놀이 중 동기 원생이 밝은 곳을 나도 따라가며, 나는 우리라는 소중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였다.

#ASAN 제11기 #THE ONE AND ONLY #울림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27



봉산탈춤

낙양동천 이화정, 봉산탈춤 배우기 #이규민

아산서원에서 배웠던 많은 수업 중 가장 특별한 것을 고르라면 나는 아마 봉산탈춤을 선택할 것이다. 서원 면접을 보던 중 가장 듣고 싶은 수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봉산탈춤이라고 당당히 말했던 내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몸치인 것 같아 자신이 없었지만, 항상 즐겁게 추면 된다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 덕에 다양한 동작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몸은 힘들지만, 과정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봉산탈춤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했던 날과, 사자와 함께 마부가 되어 설명회 무대에 서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봉산탈춤 #다리가 아픔 #하지만 자신 있게 #설명회 마부





농촌봉사활동

함께 땀 흘리는 서로가 있다는 것 #김운효

농활에 가는 길부터 우리는 각양각색의 몸뚱이 바지를 입고 신이 나서 조잘조잘 떠들기 시작했다. 땀방울이 자연스레 맺히는 일이더라도,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땅을 먼저 파 묘목을 바로 심을 수 있게 하는 친구, 무거운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계속 챙겨주었던 친구, 말은 일을 끝냈지만 느린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금 느꼈다. 또한 함께 일하시던 장애인분들의 해맑은 웃음과 친근하게 말 걸어주시던 모습도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땀이 주는 기쁨 #몸뚱이 바지의 향연 #흙과 뭉아일체



팀스포츠(1): 체육대회
응답하라 2000! #이지혜

날이 좋아서, 바람이 적당해서, 우리가 함께여서, 모든 것이 좋았다. 햇빛도 찬란하던 금요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11기만의 운동회가 열렸다. '추억의 운동회'를 주제로 삼았던 이번 원생 기획 체육대회는 릴레이 달리기, 짝 피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건돌리기 등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경기들이 가득했다. 진지하게 생각을 나누던 모습들은 온데간데없이 친구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시합에 열중했다. 함께 웃고 뛰고 이야기하며 풍풍 샘솟는 활기찬 매력에 한강보다 우리가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참간했던 체육대회 #팔방미인 제11기







팀스포츠(2): 볼링
핀처럼 모인 제11기 #강환

제11기 원생들과 즐긴 볼링은 여느 스포츠 경기와는 또 다른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보통 경기를 할 때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못 하는 사람을 압도하는 일이 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팀스포츠는 다 같이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잘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서로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다. 볼링을 쳐본 경험이 별로 없지만 한두 번 더 해봤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반대로 조언도 받았다. 더불어 경쟁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다.

#굴리든 던지든 #핀만 맞추면 됨 #그게 바로 #제11기 원생이 #사는 길



팀스포츠(3): 조정
한 방향으로의 전진 #고세영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진정한 팀워크. 날씨가 무더웠던 어느 토요일, 제11기는 가장 기대하고 있던 조정 경기를 하였다. 응원전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열정은 뜨겁게 타올랐고, 보트에 올라 노를 잡으면서 느낀 묘한 짜릿함과 긴장감은 우리를 조정 선수로 거듭나게 하였다. 내 노를 잘 젓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노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며, 그 과정 안에서 진정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일치해야 하는 그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법을 깨달았다.

#은땀으로 #노 젓기 #한마음으로 #영차영차









문화체험(1): 풍속화 및 사군자 그리기
북촌의 중심에서 한국화를 외치다 #김재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돌돌 말린 족자를 펼쳐 내려다보며, 그림 속 세상에 사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게 동양화의 매력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을 그렸다. 김홍도의 민속화를 따라 그리고, 매난국죽 사군자 중 충성심과 절개를 상징하는 난을 쳤다. 우리는 알뜰게 말을 듣지 않는 붓을 타고 시간여행을 했다. 붓 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굵기와 농담에 몰두하니 어느새 시간여행이 끝나고 다시금 북촌문화센터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으로 과거와 이어진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것이 화가의 길 #북촌 #NO 데이트 #YES 한국화





문화체험(2):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관람 윤동주를 만나다 #이다솜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를 통해 동주를 다시 만났다. 동주에게 시는 전부였고, 시는 동주였다. 내가 윤동주였다면 사랑하는 사람 한 명조차 없는 곳에서 전혀 살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시를 통해 살아남았다. 뮤지컬이 삶에 주는 충만한 에너지도, 뮤지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윤동주의 시에서 느껴진 포근함도 좋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동주 감성 #윤동주, 달을 쏘다 #동주와 몽유 #마음속에 영원히





문화체험(3):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관람
시대를 초월하는 문학의 힘 #김미나

<세일즈맨의 죽음>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뛰어난 연극이라는 평을 받는 아서 밀러의 작품이다. 영어영문학도인 나는 이미 이 작품을 텍스트로 세 번이나 마주하였지만 실제로 연극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원생들과 함께 관람하는 것이 매우 뜻 깊었다. 최고가 되는 것을 누구나 목표로 삼던 시절, 실패한 세일즈맨 윌리 로만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이야기는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함에도 2017년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도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문학을 왜 읽는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



#아메리칸 드림 #누가 윌리를 죽였나 #아서 밀러



문화체험(4): 공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관람
 Vive la musique! #김소연

매 곡이 끝날 때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쳤다. 몇 번이고 연주자들이 다시 나와 인사를 해도 청중의 감동은 식을 몰랐다. 김형국 교수님의 따뜻한 설명과 함께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탁월한 연주가 안내하는 공간으로 정신없이 들어갔던 우리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야 벅찬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로비에 계시던 강동석 예술 감독님과 연주자들을 만나며 언어를 넘어 음악이 주는 공감에 대해 생각했다. 오보이스트 Olivier Doise 님도 비슷한 것을 느꼈을까? 환한 미소로 사인을 해주며 이렇게 적어주었다. "Vive la musique!(음악 만세!)"

#실내악의 #매력에 #풍당





**문화체험(5): 전시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전> 관람**
장욱진을 만나다 #김나윤

좋은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김형국 교수님께서 “관객이 자신을 이해할 때까지 가난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보러 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는 그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작가의 신념과 화풍이 뚜렷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자화상」부터 「가족도」에 이르기까지 그가 사용한 전통적인 소재와 작품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화폭을 통해서나마 그를 만난 것 같았다. 한평생 욕심 많은 사람을 멀리하며 오직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을 그리다 간 그가 바로 좋은 작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플하다 #Simple is the best #날렵까지 비만까지





**문화체험(6): 전시 <마리 로랑생전,
색채의 황홀> 관람**

그림에 녹아든 한 여자의 일생 #박지원

나는 화가의 정체성이 잘 녹아 있는 작품을 좋아한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의 시대적 배경과 당시 개인의 감정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특징이 있는 화가들을 선호한다. 마리 로랑생이 남긴 모든 작품에는 그녀의 일관된 삶이 녹아 있었다. 전시관을 지나며 어떤 작품을 마주해도 특유의 색채와 형태 때문에 바로 그녀의 작품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된 모습 속에서도 당시 그녀의 생각과 감정은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남겨둔 흔적을 통해 나는 그림뿐만 아니라 마리 로랑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리의 색 #분홍색 #하늘색 #회색



**문화체험(7): 전시 <알렉산더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 관람**

디자인의 한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지라드 #공도아

알렉산더 지라드는 가구, 소품, 벽지, 주방용품 심지어 각설탕 종이까지도 그만의 독특한 색채와 패턴으로 디자인했다. 심지어 미국의 한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디자인하기도 했던 그는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디자인을 접목해 그의 예술적 감성을 대중화시켰다. 상업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을 시절부터 지라드는 오로지 디자인에 대한 열정으로 그만의 매력적인 스타일을 구현했고, 끝내 대표적인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이너가 되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기보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잊지 말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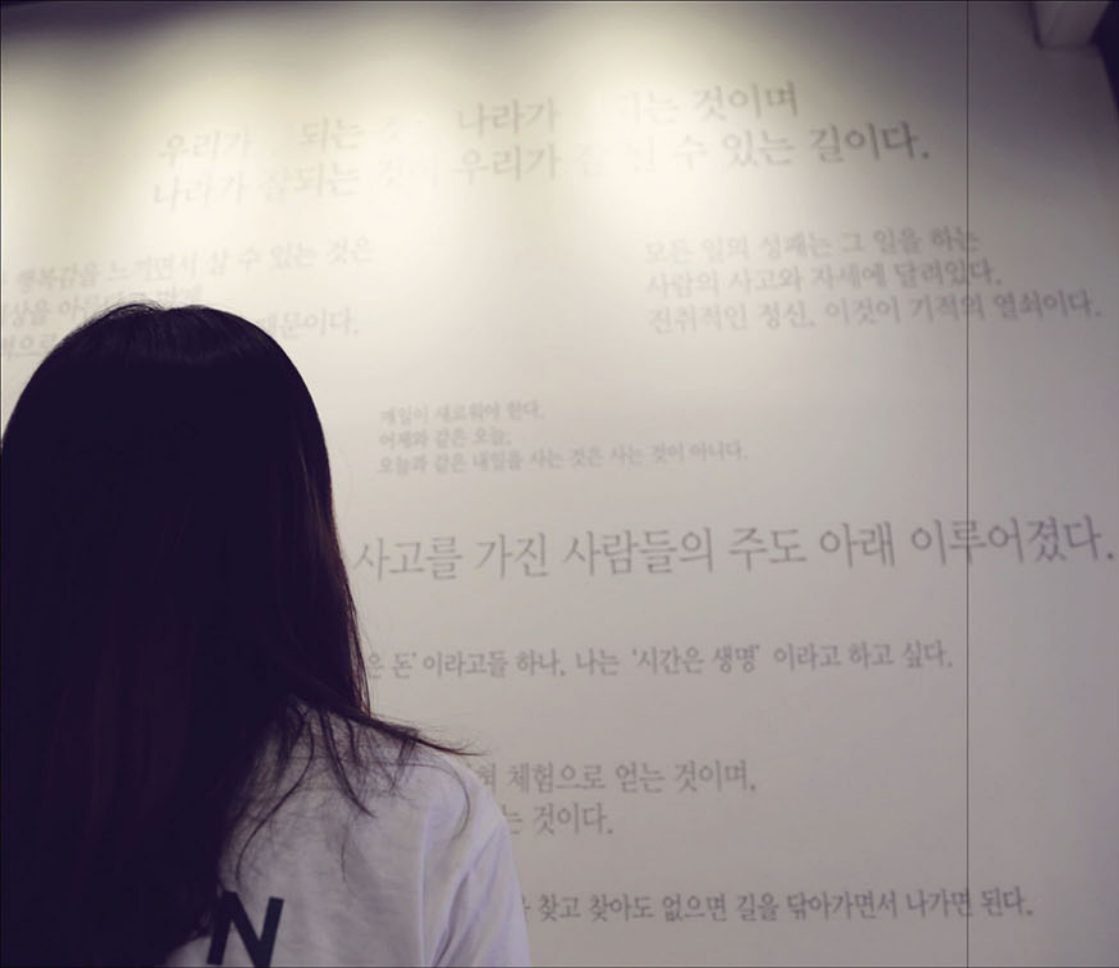
#한계가 없는 디자인 #다방면 디자이너



안동/울산 문화기행
별이 빛나던 밤 #이소영

푸르른 5월, 바쁜 서원 생활을 벗어나 떠났던 안동과 울산으로의 문화기행은 실새 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큰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 안동의 자연미를 뽐내던 월영교, 조선 시대 유생들과 퇴계 이황의 기운을 각각 느낄 수 있던 도산서원과 퇴계 흥택, 아산정신이 느껴지는 현대중공업,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우리를 반겨주던 대왕암공원까지, 맑은 날씨와 어우러지는 싱그러운 풍경은 우리의 오감을 깨워주었다. 특히 고즈넉한 종택에서 좋아하는 시와 각자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시 낭송 시간은 수많은 별이 빛나던 아름다운 5월의 밤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떠나요 #자연으로 #서원으로 #충전 타임









작은 음악회 음악으로 하나 된 우리 #김재희

우리의 작은 음악회는 성공적이었다. 제11기 원생들이 보름 동안 하나 되어 연습한 결과,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합창과 연주를 멋지게 끝낼 수 있었다. 사실 마지막 연습 때까지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니 그 시간이 마냥 즐거웠다.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 발전하지만, 음악은 모두가 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신 이윤희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준비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작은 음악회를 통해 다시금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오합지졸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제11기의 작은 음악회
#성공적



자치회

너와 내가 만드는 영화,
아산서원 #김재희

아산서원을 영화에 비유하자면 모든 원생이 감독이자 작가이자 출연자이다. 봉사활동, 팀스포츠, 설명회는 물론, 생일 파티나 회식과 같은 소소한 행사까지 모든 원생이 자치회에서 의견을 내고 기획하기 때문이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기획에 큰 도움이 될 때 나는 감독이나 작가가 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주연 혹은 조연이 되기도 한다. 자치회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적인 힘을 기르고,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과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을 배웠다.

#11번째 개봉 #원생 연출 #원생 출연
#후원 아산서원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찾는 한국. 두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강환

더 넓고 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고세영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았습니다.

- 공도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다시 회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나윤

작은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이 사람과 만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미나

정의를 위하여 일어서신 이들이 만든 희망의 물결,
곧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 됩니다.

- 김소연

민족 단위의 외교 활동을 바라보며 한국인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 김재환

스스로 그은 꿈의 한계를 무너뜨린 시간이었습니다.

- 목종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워싱턴 DC에서 보낸 시간만큼 화려하고,
꽤 찬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 박지원

미국에서 한국을 배웠습니다.

- 박희재

때론 설득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선을 찾으며
내가 가진 가치관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손은유

변화의 중심 워싱턴 DC에서 넓은 세상을 품었습니다.

- 심경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나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 이규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이다솜

가장 역동적인 곳에서 '나다움'을 반추하였습니다.

- 이상민

'다양성',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곳'. 워싱턴 DC하면 떠오를 단어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았던 5개월간의 여행이었습니다.

- 이소영

넓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재준

인권 문제와 국제 정치 사이의 갈등과 조화, 그리고 관계.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마주하고, 탐구하고, 포용하였습니다.

- 이지혜

한국에서는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을 마주보았습니다.

- 정현구

#Washington





Amnesty International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의 시작은
내 손의 촛불 하나 #이다숨

Amnesty International의 직원 모두는 자기 일을 사랑한다. 벽 한편에는 'You are doing amazing work,'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나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과를 낼 때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멋진 일이란 이미 잘 사는 사람을 편하게 돕는 일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큰일을 이루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인턴십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이 아름다웠다.

#Amnesty International #어두운 곳을 비추는 #세상의 등불

Amnesty
International
U S A





Atlantic Council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 #김미나

인턴십 생활 중 가장 애정을 가졌던 프로젝트는 일본 외교부와 진행한 아시아 안보 콘퍼런스이다. 하나의 콘퍼런스가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해나갔다.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단계는 하나도 없었다. 몇 개월간 준비해 온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오는 기분은 마치 영화감독이 오랫동안 촬영한 영화를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올릴 때와 같았다. 무엇보다도 늘 함께 해온 팀원들과 이 감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Best Teamwork #성장하는 기관 #거의 잭과 콩나무

#와플 프라이데이 최고 #Team Asia Security #스타벅스 기계 있음





Cato Institute

Cato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 #손은유

나는 대학에서 전공한 금융과 관련이 있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Cato에 지원하였다. 정치 철학에 대해 거의 무지했던 나는 자유 지상주의라는 뚜렷한 신념을 가진 Cato에서 하나씩 배우고 싶었다. 실제로 주 3회씩 진행되는 인턴 강연을 통해 다양한 논리의 구조를 배우고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정치 사회 이슈를 토의하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프레임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때로는 설득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선을 찾으며 나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질문을 한 시간이었다.

#Cato #Libertarianism #끝나지 않는 Intern Lecture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은?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에서 새롭게 느끼는 세상 #심경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완벽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매일 내가 숨 쉬는 자유마저도 같은 시각 어떤 이에게는 간절하고 절박한 꿈일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CIPE에서 일하면서 깨우쳤다. 예술과 언론을 통한 개인들의 외침이 차단되고, 힘없는 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CIPE는 민영기업과 시장주의 기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곳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나라는 작은 개인, 여러 국가, 그리고 넓은 세상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CIPE #Asia #Democracy #Private Enterprise
#Market Oriented Reform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늘 새로워, 짜릿해! #이상민

워싱턴 DC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세련된 CSIS 건물에는 창의적 정책 제안으로 의사 결정을 돕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담론을 경계하는 CSIS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내게 큰 자극을 주었다. 현실 문제를 직시하며 합리적인 분석 과정을 경험한 이곳에서의 경험은 매시간이 공부였다. 특히 국제 경영을 다루는 Scholl Chair의 일원으로 나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를 연구하며 향후 경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 가장 급격한 변화를 대하는 역동적인 시간이었다.

#CSIS #역동적인 #프로페셔널리즘



East-West Center

동서양의 교류 속에서 다시 만난 한국 #박희재

EWC가 내게 최고의 기관인 이유는 아시아 정세에 관해 글을 많이 쓸 수 있고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영어 기사를 읽고, 글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운이었다. 한편, 기관 특성상 대부분 인턴들이 아시아 지역학 전공 대학원생들이어서 미국 학계가 아시아, 특히 한·중·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접할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서 배운 한국과 세계가 배우는 한국은 달랐다. EWC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나는 오히려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애국심에 #붙타고 #EWC에 #취한다





Korea Economic Institute 한국을 떠나 찾은 한국 #강환

KEI에서의 인턴십은 한국에 대한 나의 인식을 되돌아보는 거울 같은 시간이었다. 한국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내가 편협한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또한, 연구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나에게도 한국인의 관점을 묻는 것을 보며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비록 워싱턴 DC에 있지만, 한국을 향한 전망대에 다녔던 것처럼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다.

#Once KEI #Always KEI #문사장님 #KEI 응원 중



The Henry L. Stimson Center

나를 발견하기 #정현구

Stimson Center에는 한국 선임연구원이 없다. 북한과 동북아 지역에 대해 공부하리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던 나에게 슈퍼바이저가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많은 정보와 시각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던 첫날, 나는 걱정부터 앞섰다. 하지만 매일 나의 하루를 한반도 안보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패권국들의 이익을 향한 각축장 한가운데에서 한국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렇기에 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Stimson Center에서의 시간이었다.

#워싱턴 DC에서 고민하는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북한 도발은 그만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갈등 해소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Advanc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U.S.-Asia Relations

199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동아시아 관계 #공도아

Mansfield Foundation은 직원이 열 명도 채 안 되지만 펠로우십, 워크숍, 정책 토크 등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인턴십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는 여러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다양한 행정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각 분야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대중, 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의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네트워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미·동아시아 관계의 얽히고 설킨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Mansfield Foundation에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찾는 기회를 얻었다.

#미국과 동아시아의 연결 고리 #균형 잡힌 시각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우리가 만드는 희망의 물결 #김소연

RFK는 세계 곳곳의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하여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인권 시상식과 음악 및 비디오 경연대회를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는 곳이다. 로버트 케네디는 “한 사람이 정의를 위해 일어설 때마다 생기는 희망의 물결이 모이면, 강력한 억압의 벽을 무너뜨릴 조류가 된다.”라고 말했다. 본인 몫의 작은 물결을 만들기 위해 매일 분투하는 동료들과 함께 세계 인권을 위해 일하면서 내가 누려온 평등과 정의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Each time a man stands up for an ideal
#He sends forth a tiny ripple of hope #RFK



#멜리사 추(Melissa Chiu) 관장님 특강
#엘렌 레입슨(Ellen Laipson) 최고 연극위원장님 특강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의원님 특강
#더글라스 팔(Douglas H. Paal) CEIP 부회장님 특강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님 특강

#미국 의회 & 의회도서관 방문 #뮤지컬 <The King and I> 관람
#KEI 모의 6자회담 참여 #셰넌도어 밸리(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문화교류
#아산서원 네트워킹 믹서(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개최
#AJC 오찬 간담회 참여 #이글힐 농장(Eagle Hill Farm) 방문
#한국전쟁재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비공식 활동

#Washington
#Friday Program



멜리사 추(Melissa Chiu) 관장님 특강
모두의 놀이터가 된 허쉬혼 박물관
#공도아

허쉬혼 박물관의 관장님인 멜리사 추(Melissa Chiu)는 마르셀 뒤샹의 변기 작품 「샘(Fountain)」을 예시로 들면서 작가가 직접 작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의와 박물관 투어를 통해 현대미술을 다루는 허쉬혼 박물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현대미술을 어떻게 보관 또는 전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디지털화된 미술 작품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클릭 몇 번이면 수천만 개의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오늘날, 허쉬혼 박물관은 더 많은 대중이 작품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비하고 직접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었다.

#현대미술의 전당 #박물관의 변신





엘렌 레입슨(Ellen Laipson) 최고 연구위원님 특강
 내가 알던 중동, 내가 알게 된 중동 #고세영

'새로운 중동', Stimson Center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다. 나는 '중동의 정치' 하면 억압받는 여성들과 내전으로 인한 상처를 떠올렸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품어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강연이 소중했던 이유는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을 미국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중동 문제를 다루던 엘렌 레입슨 최고 연구위원님 덕에 미국 정책에 대한 의문 혹은 오해를 풀 좋은 기회였고, 원생들이 한국에서 배웠던 거대 담론들의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중동, 아시아만큼 정치적으로 다양함 #종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
 #원생들 질문 열정 뽐뽐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의원님 특강
Voice of America toward Korean Peninsula **#박희재**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님은 콜로라도주를 대변하는 의원이자, 대북 제재 정책의 입안자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한미간 교역이 왜 미국에 중요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던 한미 FTA보다 더욱 직접적인 미국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정책 입안자로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해석과 주석이 달린 한미 FTA와 대북 제재 정책만을 접해오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원생으로서 참 소중한 기회였다.

#한미동맹 #레알 정치인 #VOA #Cory Gardner



더글라스 팔(Douglas H. Paal) CEIP 부회장님 특강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손은유

워싱턴 DC에서 나는 매일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읽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더글라스 팔 부회장님의 강연은 짧게 끝났고 원생들의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자기 생각을 세우려는 치열한 고민과 입지 않은 욕심 덕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당 대회를 앞둔 중국의 상황,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와 통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더글라스 팔 부회장님은 확고하고 깊이 있게 답해주셨다. 그간의 노력과 부회장님의 강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생각을 부수고 다지며 더 단단해졌다.

#끝없는 질문 세례 #더욱 단단해진 제11기 #세상 걱정 혼자 다 하는 제11기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님 특강
 미국 외교의 중심에서 #목종균

미국 국무부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이다. 국무부 현직 외교관과의 만남은 매일 외교정책 전문가들과 가까이 일하는 원생들에게도 설렌 경험이었다. 국무부의 철저한 보안과는 대조적인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님의 유쾌한 입담 덕분에 북한 인권, 한·미·일 동맹, 미국의 대중 정책 등 무겁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원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공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함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 또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어 원생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셨다.

#Mark Lambert #제11기 원생





미국 의회 & 의회도서관 방문 역동의 핵심 #이상민

미국 의회와 의회도서관의 웅장한 규모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과거 유럽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그 열등감 속에 묻혀있던 '미국적인 것들'은 20세기에 꽃을 피워 현재 가장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냈다. 헌법을 구심점으로 각기 다른 신념과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양성을 표출하며 미국을 창조해냈다. 그 역동의 핵심에 의회와 의회도서관이 있었다. 미국 내의 수많은 대변자가 의회에 모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것이 기록되어 도서관에 보관된다. 매 순간 역사가 쓰이고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아닐까?

#미국 #살아있는 #계속되는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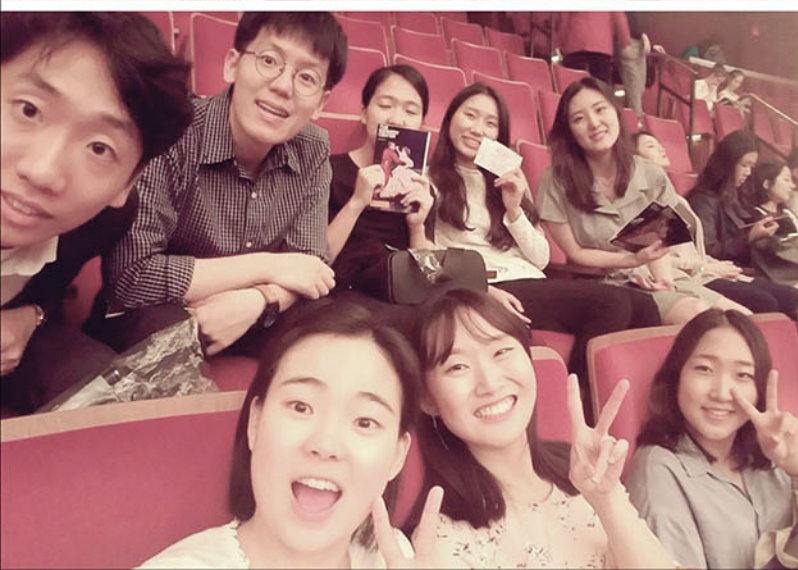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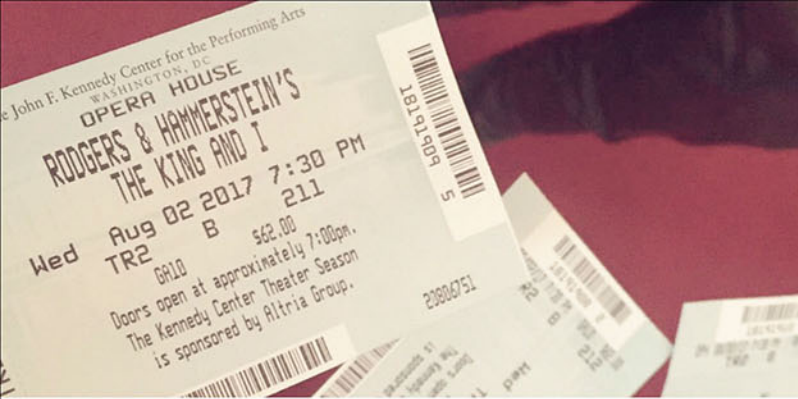
뮤지컬 <The King and I> 관람
 <왕과 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 #이다솜

<왕과 나>는 제국주의 당시 서구의 관점으로 쓰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암 왕국의 태국 왕이 영어와 서구 사상을 가르치고자 온 영국인 교사와 사랑에 빠진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왕이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안나를 만나 변하는 과정을 보며, 동양을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서양의 편견이 느껴졌다. 음악과 연출이 화려했지만, 태국의 문화보다는 오리엔탈리즘이 재생산된 이미지로 보였다. 현지 관객들은 웃으며 관람할 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 역시 다른 문화를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던 시간이었다.

#월 위 댄스 #유일하게 아는 노래

#나도 간다 태국 #태국 왕자 딱 기다려 #신분 상승의 꿈







KEI 모의 6자회담 참여
아산서원에서 세상을 논하다 #박지원

모의 6자회담을 하며 손숙 선생님께서 교육에 있어 연극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다. 실제로 역할극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점수제로 진행한 모의 6자회담을 통해 국가마다 처한 다른 상황과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배웠다. 복잡한 국제관계를 단순화시켜 합의만 이루려고 했는데도 결국 우리 조는 시간 안에 이루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상대국의 입장을 더 잘 알게 된 후에야 현실에서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다.

#아산서원을 위한 새로운 게임 #동북아의 미래는?





세넨도어 밸리(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세넨도어의 밤 #김나윤

세넨도어에서의 첫 번째 밤, 우리는 원생들이 보내준 사연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부터 기대와 똑같지만은 않았던 워싱턴 DC에서의 생활과 고충까지. 그 사연들은 마음에는 담아두었지만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두의 이야기들이었다. 두 번째 밤, 우리는 생각보다 매웠던 연기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구운 고기로 저녁을 해결한 뒤 탁 트인 평원에 돛자리를 깔고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봤다. 가끔은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세넨도어에서의 밤이 그랬다.

#Shenandoah 국립공원 #밤







헤리티지 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문화교류

헤리티지 유람기 #이재준

헤리티지 믹서는 강연과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실로 향하는 고풍스러운 외관은 원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연구원님의 강연과 헤리티지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 회장님의 강연까지 연이어 들은 후, 우리는 헤리티지와 보수주의에 대해 평소 가졌던 비판적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네트워킹을 통해 헤리티지 인턴들과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

#Edwin Feulner #헤리티지 회장 #보수주의

#네트워킹 #북한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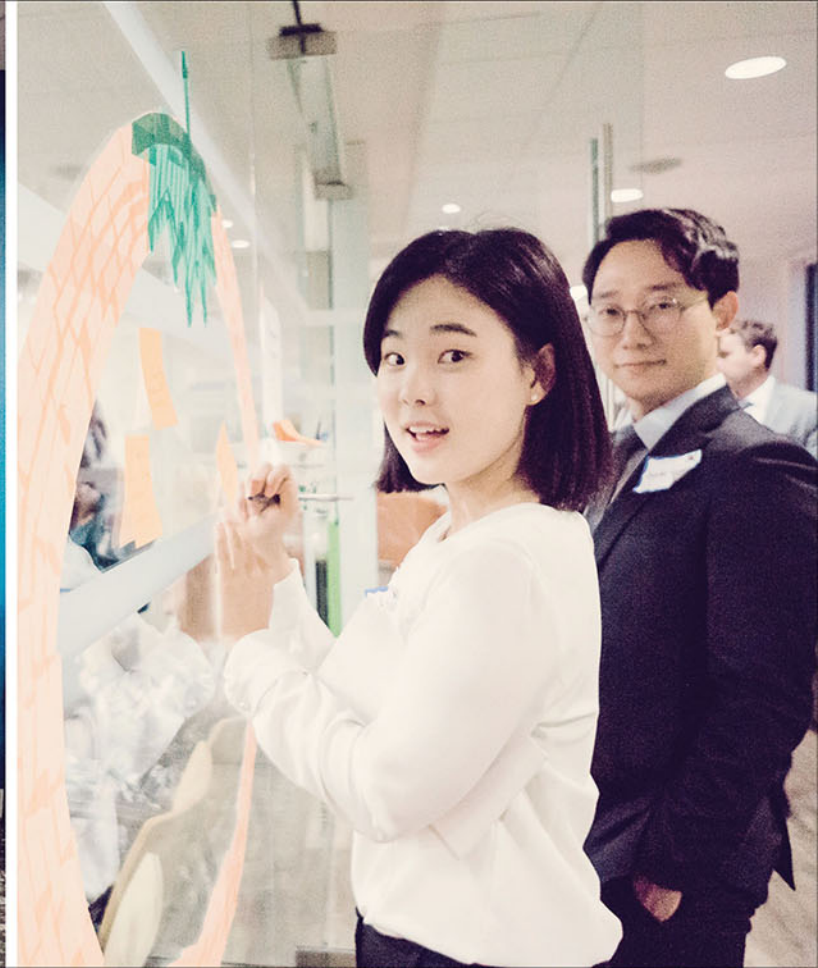




아산서원 네트워킹 믹서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개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이소영

미국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아산서원 네트워킹 믹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마침 행사 날이 추석이었기에 'Korean Thanksgiving Day'를 주제로 한식뿐 아니라 한글, 전통놀이, K-POP, 사물놀이, 합창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기로 했다. 호스트가 되어 파티를 준비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동료들이 한국 음식을 주저 없이 맛보고, 놀이를 통한 체험도 흥미로워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모인 40여 명의 친구와 원생들이 모두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한 달간의 수고가 보람으로 느껴졌다. 타지에서서의 추석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하루였다.

#두 시간이 아쉬워 #문화 알리미 #제11기 짱 #한식 최고







AJC 오찬 간담회 참여 코셔 음식 한 입 하실래요? #김재환

매 기수마다 아산서원 원생들을 위해 열리는 AJC 오찬 간담회는 AJC 연구원들의 멋진 강의와 만찬이 곁들여진다. 대화와 질문의 형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강의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다. 강의 이후, 비슷해 보이지만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 또는 미국계 유대인으로 저마다 다르게 소개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생각했다. 민족이란 무엇일까?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새로 먹어본 유대인 전통 음식만큼 새로운 고민과 지식을 잔뜩 얻어간 하루였다.

#코셔 #겨울에는 #손도 시려 #유대인 음식 #맛있다



이글힐 농장(Eagle Hill Farm) 방문
天高馬肥 #심경혜

워싱턴 DC 도심을 벗어나 맛있는 이글힐 농장의 가을. 이글힐 농장은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진 말들을 구조하고 기르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느덧 무수히 흠어진 낙엽들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였다. 봉사 후에는 말과 사진을 찍고, 맛있는 BBQ를 먹고, 영화에도 출연한 근사한 말 럭키를 탔다. 말의 고삐를 잡은 농장 주인 애니(Annie)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미국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진 소통에 대해 생각하였다. 언어의 장벽, 국적, 그리고 생물학적 종을 뛰어넘는 소통 이면의 공감에 대해 고민한 10월의 어느 근사한 하루였다.

#Eagle Hill #Horse riding #소통 #공감 #가을





한국전쟁기념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가장 추웠던 날, 가장 따뜻했던 손 #김미나

11월 11일 유난히 추웠던 날, 제11기 원생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에 참여하였다. 원래 우리의 일정은 헌화에만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한복을 입고 참전용사들을 에스코트하게 되었다. 한복만 입은 채로 참여한 행사는 너무나도 추웠지만,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겨울은 얼마나 더 추웠으며, 여름은 또 얼마나 더웠을까? 세찬 바람 속, 내가 에스코트했던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맞잡은 손은 따뜻했다. 오늘보다 추웠을 날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Thank you #Remember
 # 'Un'forgettable War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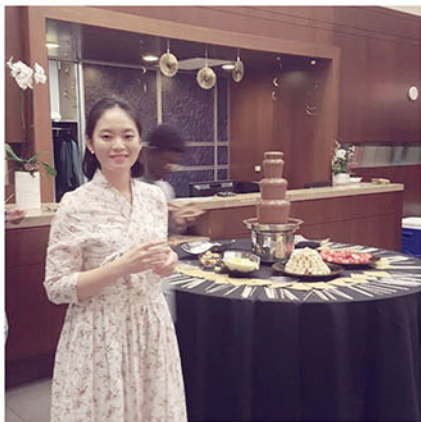
네트워킹(1)

네트워킹의 도시, 워싱턴 DC #박지원

워싱턴 DC는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네트워킹과 이벤트가 많다. 나는 인턴 친구들뿐만 아니라 연구진들과도 편하게 친해질 수 있는 기관 내의 해피 아워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었다. “Who do you work for?”로 시작한 대화는 후에 다시 마주쳤을 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나? 내가 하는 연구도 도와줄 수 있니?”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사회생활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에게 이런 시간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Show up #Show interest





네트워킹(2)

Halloween Party in the Library #고세영

내가 인턴으로 일하는 CEIP 도서관에서 할러윈 파티를 열었다. 처음에는 '흔한 호박 조각이나 복장도 없는 데다가, 도서관에서 할러윈 파티라니!'라고 생각했지만, 파티는 색다르고 즐거웠다. 책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연구원들이 미국의 '핵 우산'을 직접 흉내 내며 할러윈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매우 CEIP답다고 생각했다. 한시도 연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지만, 매 순간 일상의 재미를 찾아내는 곳, 그것이 내가 느끼는 CEIP였다.

#Halloween in Carnegie #Pumpkins in the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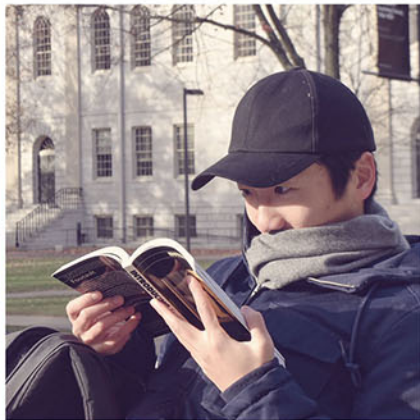


여행(1)

청춘의 여행 #목종균

청춘의 여행은 고달프다. 새벽 5시 40분 보스턴행 야간버스를 타고 9시간을 달려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버드 대학교로 향했다. 커피로 간단하게 몸을 녹인 후 캠퍼스 곳곳을 누볐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러 갔지만, 비싼 가격에 아무것도 사지 못하였다. 그래도 출구에 적혀 있던 'Depart to Serve Better Thy Country and Thy Kind,' 라는 멋진 문구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으니, 아쉽지는 않았다. 저녁으로 바닷가재찜 대신 게살 수프를, 좋은 호텔보다는 도시 외곽의 Airbnb에서 숙박했지만, 그래도 여행은 청춘이기에 더 즐겁다.

#9시간 버스 #청춘도 #허리가 #쑥신다





여행(2)

미국의 시작, 필라델피아에서 #이소영

미국 여행을 하며 느낀 점은 도시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주를 떠올리게 했던 역사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내가 가장 좋았던 곳은 미국 헌법 박물관이었다. 이야기를 들려주듯 헌법 창제 전후의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놓아서 미국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에 대해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이제는 필라델피아가 워싱턴 DC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시작과 헌법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필라델피아에 꼭 한번 가보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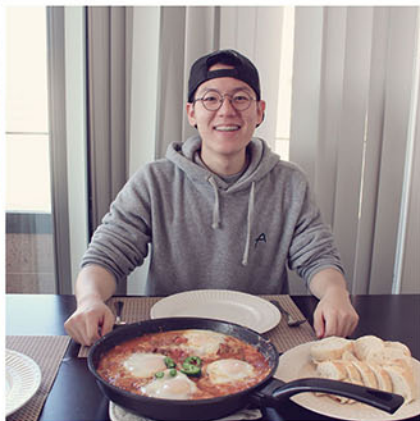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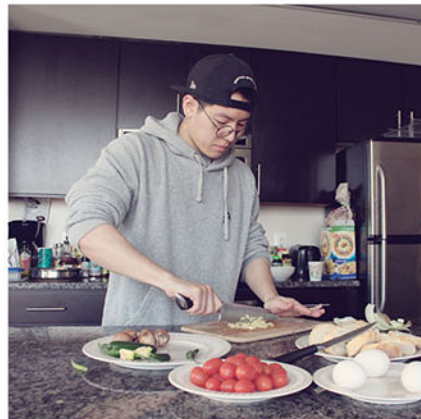
#당일치기 추천 코스 #건기 좋은 여행지 #미술관도 좋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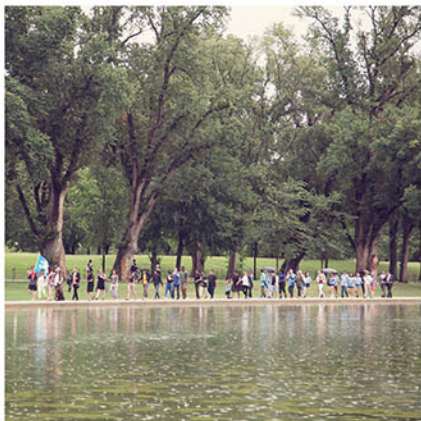


워싱턴 DC의 생활
미국의 요리왕 #김재환

나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내 음식 내가 해 먹기' 계획을 세웠다. 워싱턴 DC 생활을 돌아보면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만든 갈비찜, 닭볶음탕, 프리타타, 동파육 등은 다른 원생들에게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지 인턴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의 맛을 보여주는 인턴 생활 중 나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기도 했고, 대접했던 음식을 다시 먹고 싶다며 집에 초대를 받기도 했다.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식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나의 미국 생활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요리왕 #비빔 #비빔왕 #요리 #백주부 #만세





봉사활동(1)

Remember 727 #이재준

미국의 링컨 기념관에서 휴전 협정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있었다. 우리는 행사 준비를 위한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무더운 날 땀을 흘리며 의자를 옮기고 천막을 만들던 중,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기 시작했다. 행사장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지만,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이 참전용사의 용기를 잊지 않고 와주었음에 뿌듯했다. 행사가 끝날 때쯤에는 온몸이 땀과 비로 범벅이었고 옷은 젖고 다리는 통통 부어 있었다. 그러나 참전용사 한 분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 눈과 비를 맞으며 고생한 그분들의 노고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아직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휴전 협정 #Remember 727
#참전용사 #폭우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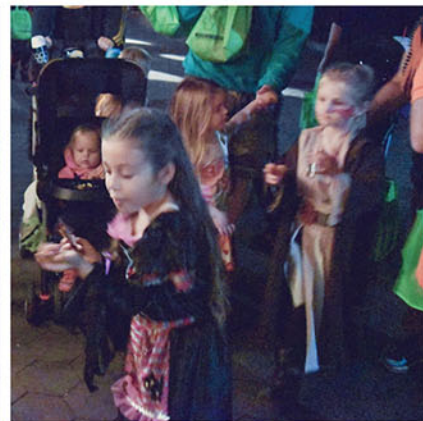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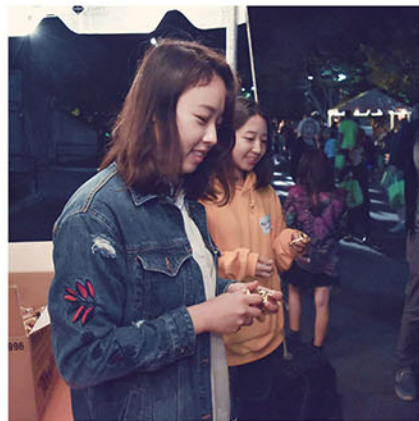


봉사활동(2)

Boo at the Zoo! #이규민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국립 동물원에서는 매년 할러윈 때마다 'Boo at the Zoo!' 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저녁 시간 동물원을 할러윈 장식으로 꾸미고 참가자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행사이다. 어린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의상을 갖춰 입고 "Treat or Trick!"을 외친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는 가족의 훈훈한 모습과 사탕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귀여운 아이들 덕분에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던 봉사활동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Happy Halloween! #Smithsonian Zoo #Boo at the Zoo
#할러윈 코스튬 #사탕 주세요





원생의 하루
워싱턴 DC의 서점 #김나운

언젠가부터 새로운 곳에 가면 서점을 꼭 한 곳이라도 들러야 마음이 편했다. 아마 서점이 생각보다 그 도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일 것이다. 쉬는 날에는 워싱턴 DC의 서점들을 구석구석 둘러보곤 했다. 역사와 정치 분야의 책들이 그 어떤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서점이 워싱턴 DC 말고 또 있을까? 그렇게 들른 서점에서는 여행자도, 작가도, 서점 주인도 책 속에 동화되는 것 같다. 책 냄새를 뒤로하고 서점을 나올 때마다 다시금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찾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

#책 #워싱턴 DC의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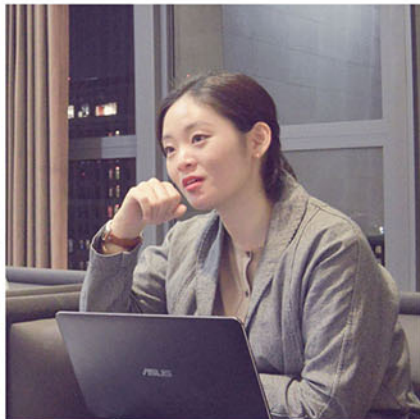


소모임

우리만의 작은 학교, 소모임 #이지혜

인턴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인문교육부터 시작한 코딩 소모임은 계속 진행되었다. 함께 둘러앉아 파이선으로 코드를 짜보기도 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공부를 계속해나갔다. 워싱턴 DC에서 다양한 콘퍼런스를 통해 지식을 함양하고 인턴십을 하면서 국제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보낸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끼리의 소모임을 통해 파이선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이 즐거웠다. 서투르지만 함께 해서 재미있고, 미흡하지만 같이 실력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 소모임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며 #파이선 완전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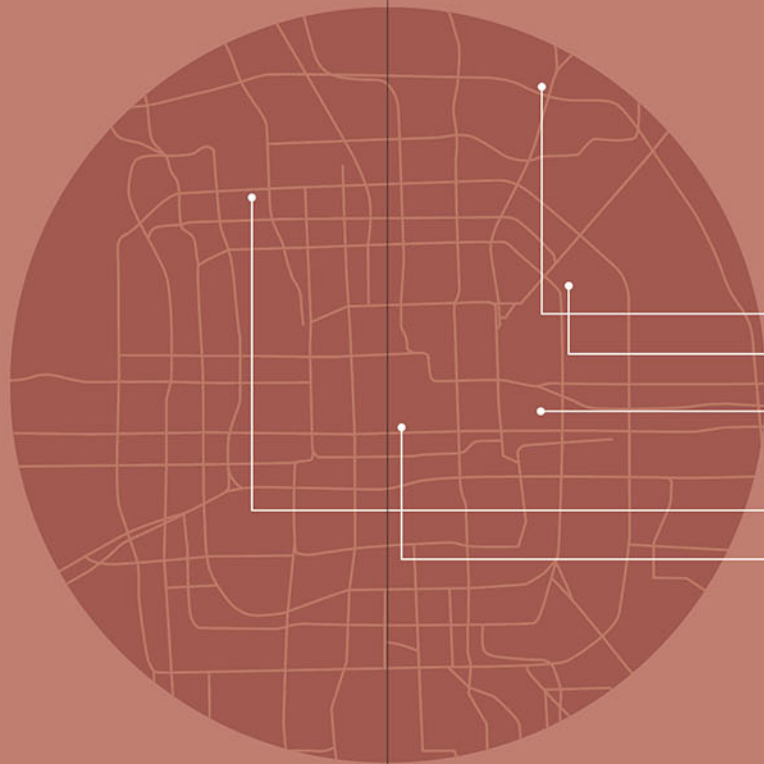
내가 바라보는 세계,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 교차점에서 걸음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 김운효

익숙하지 않던 일과 사람들이 소중한 추억이 된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 김재희

#Beijing



아라산SEE문자지구

신공안계획

남도문자지구

칭화-파리제 글로벌정책센터

기금회중생양



기금회중심망

중국을 알고 싶다면 CFC로 #김재희

중국 공익 재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CFC에서의 인턴 경험은 내가 중국을 한층 더 깊게 알게 해주었다. 공익 재단은 사회문제와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국의 공익 재단을 소개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던 나는 서로 다른 공익 재단을 통해 중국을 여러모로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동료 간에 친목 행사가 많았고, 무엇보다 나를 외국인 인턴이 아닌 친구로 대해준 동료들 덕분에 행복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숫자로 보는 공익 재단 #공익 재단으로 보는 중국





신공민계획

한 유동 아동이 학교에 다니기까지 #김운효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을 가진 '유동'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훨씬 복잡한 개념이다. 농촌과 도시가 서로 호구(戶口)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농민공의 자녀인 '유동 아동'에게 주어지는 교육은 매우 열악하다. 신공민계획은 어떤 아이도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기관 활동 중에서 '유동 아동 박물관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다.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소중한 기회였다.

#유동이 뭐길래 #중국의 NGO를 배우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해야 한다

#경극 <적벽> 관람 #문화수업 #샤먼/선전(厦門/深圳) 문화기행
#비공식 활동

#Beijing
#Friday Program



경극 <적벽> 관람

경극으로 보는 고대 중국 #김재희

나에게 <적벽>은 그저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셨던 많은 역사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고대 언어만 사용하는 경극으로 <적벽>을 봐야 한다니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극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대 중국을 고스란히 가져온 듯한 화려한 무대와 흡입력 있는 배우들의 열연 덕에 당(唐) 시대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감정만큼은 완벽히 느낄 수 있었다. 이천여 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보며 다시금 예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중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마법 #이천 년 전으로의 여행 #경극 <적벽>





문화수업

내가 알던 중국 너머의 중국을 만나다 #김은효

역사, 경제, 정치 주제를 아울렀던 12번의 문화수업에서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배울 수 있었다. 역사 수업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어떻게 농민, 노동자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의 우상이 되었는지, 정치 수업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중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왜 중국을 이해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 수업 중간중간에 했던 선생님과의 토론은 우리가 중국에 가졌던 일방적인 시각들을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진정한 아산인이 되는 시간 #중국에 한 걸음 더

#내가 보는 중국, 중국인이 보는 중국



샤먼/선전(厦門/深圳) 문화기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미래를 엿보다

#김은혜

우리는 현재 중국 경제가 완전히 '시장경제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다소 막연한 개념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었던 우리는 초창기 경제특구였던 샤먼(厦門)과 선전(深圳)을 방문했다. 각각 대만과 홍콩과의 무역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도시인 만큼 우리는 곳곳에서 대만과 홍콩과의 밀접한 교류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이 북경, 상해에 버금가는 도시가 되어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된 것을 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는 어떠한지도 기대하게 되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특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 개방 40년 후 중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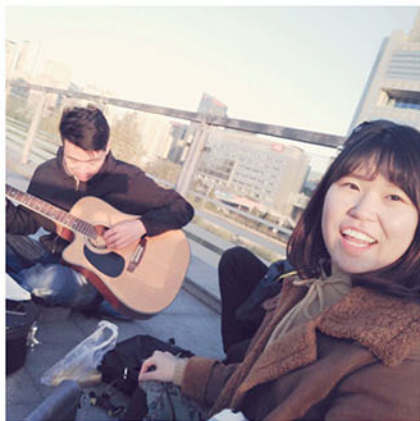


네트워킹

편견이 공감이 되기까지 #김재희

베이징에서 지내며 알게 된 기관 동료들, 문화수업 선생님과의 교류 등을 통해 중국이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은 왜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것일까?', '중국은 왜 특정 웹사이트를 제지하는 것일까?' 등의 다소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당사자인 중국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현지 생활을 하며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나조차도 점점 공감하게 되었다. 수학 문제처럼 답이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만큼은 늘 흥미로웠다.

#타국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 #식견을 넓히는 최고의 방법 #네트워킹과 현지생활





여행(1)

황금연휴 기념 몽골인 체험기 #김재희

일반적으로 '중국'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는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지만,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이나 고비사막 같은 미지의 장소들이었다. 중국의 황금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고민하던 나는 베이징과 가까우면서도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内蒙古自治区)로 떠났다. 초원에서 말을 타고 사막에서 낙타를 타는 경험을 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생활하는 몽골인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달리는 말 위에서 끝없이 넓은 초원을 바라보던 황홀했던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몽골인 듯 #몽골 아닌 #몽골 같은 #베이징의 이웃 #내몽고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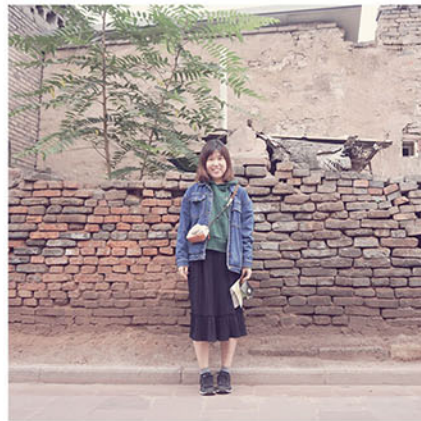


여행(2)

국경절, 중국 속에 스며든 여행 #김윤희

베이징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 많은 사람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 여행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경절 여행의 목적지로는 회사 동료의 고향인 산서성(山西省)의 농촌과 유동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허난성(河南省)의 성도 정저우를 골랐다. 동료의 어린 아들이 도시에 나가 돈을 버는 부모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을, 허난성의 작은 도시에서 정저우로 와서 일하는 또래 친구가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라며 한숨을 쉬던 것이 아직도 또렷하다. 베이징에서는 스쳐 지나치던 이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소중한 여행이었다.

#이 많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유동 인구를 찾아서 #내가 몰랐던 중국





베이징에 대해(1)

이천만 개의 꿈이 모인 도시, 베이징 #김운호

베이징은 길 한복판에서 울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도시라고 한다. 누군가는 아는 사람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 또 누군가는 이곳의 생활 리듬이 너무 빨라서 쫓기 바쁘다고 한다. 베이징의 인구 중 절반이 베이징 사람이 아닌데, 이들을 베이징을 떠도는 사람, 베이피아오(北漂)라고 한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농민공, 길거리에서 간식거리를 파는 아주머니,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사는 내 회사 동료가 모두 北漂다. 나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기도 공감하기도 한다. 베이징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꿈으로 살아가는 도시다.

#베이징을 품고 사는 사람들 #수도 베이징의 이면 #北漂를 바라보다



베이징에 대해(2)

13억 인구의 심장, 베이징 #김재희

전 세계 75억 인구 중 13억 인구가 사는 중국, 그 중심에는 베이징이 있다. 사실 나는 한 동안 베이징이 혼잡하다고만 느꼈지, 진정한 중국의 중심이라곤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고 베이징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베이징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도시가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권력의 집결지인 인민대회당, 사회주의의 상징인 천안문, 수천 년 왕조가 살아 숨 쉬는 고궁,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베이징이야말로 가장 중국다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베이징을 통해 중국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역시는 역시 #수도는 수도 #중국의 중심 #베이징





봉사활동

봉사로 되돌아본 나의 고민 #김재희

많은 사람이 공부가 어렵고 인간관계에 지쳐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봉사를 할 때마다, 난 늘 나의 고민은 행복한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한번은 수술비가 부족한 소아암 아동들을 위해 중국 어린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음악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방관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르고 힘든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가 아닌 #너와 나의 #삶의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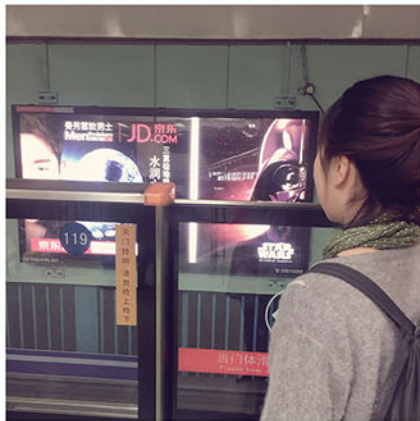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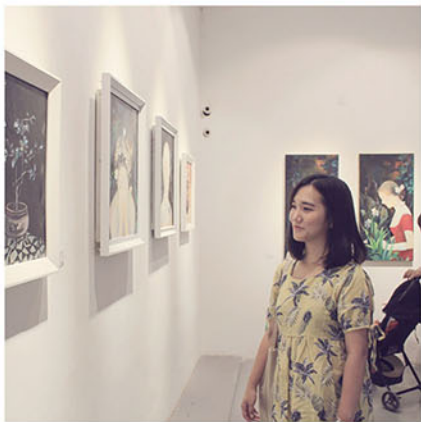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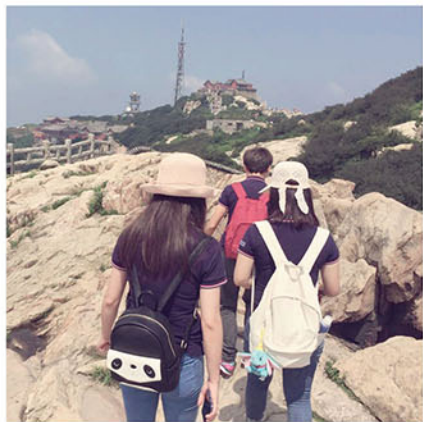
원생의 하루

낮선 곳에서 나의 속도 배워가기 #김운효

학교 다닐 때는 더 자고 싶었을 이른 아침, '출근'이란 나에게 책임감을 주는 단어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게 땀이 나더라도 상쾌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출근한다. 출근 후 꼬르륵 소리가 날 때쯤 밥 먹으라는 말소리가 들리면 주방에 들어가 밥을 담는다. 5위안,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해결하는 든든한 한 끼. 베이징은 천원부터 백만 원까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다양하다. 퇴근하고는 운동을 한다. 주로 요가와 달리기다. 해야 할 일만 끝내는 데 익숙했던 나는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데 익숙해졌다.

#이곳에서는 하루하루가 새롭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생활하기
#자전거 폭주족의 일상





베이징 인턴십을 마무리하며
새 신을 신은 재희 원생 #김재희

나에게 베이징 인턴십은 새 신발 같았다. 신발을 새로 사면 마음은 설레지만 한동안은 적응하느라 발뒤꿈치가 아파야 하듯,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다. 유일한 외국인이자 유일한 인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동료들과 친해지려 먼저 대화거리를 생각하고, 작은 일이어도 야무진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과의 관계도, 업무도 술술 풀렸다. 힘들게 적응한 새 신발은 나에게 설렘 그 이상의 것을 주었다. 일과 사람은 물론이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몸소 배웠던 5개월이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퐁썩 #인턴십을 하며 #뛰어보자 #퐁썩



Asan_Academy

나에게 #기자단이란?

강환



아산서원 전반을 걸쳐서 했던 활동인 만큼 기억에 가장 남을 것 같다. 모든 원생과 글을 통해 교류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아산서원 활동에 대한 의견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나 자신은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san_Academy

제11기 VOYAGE를 교열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김소연



교열을 하느라 친구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이 겪은 일과 느낀 감정, 그리고 그걸 써 내려갔을 그들의 얼굴이 생각나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었다. 훗날 이 글들을 가끔 들추어보며, 그 모든 것들에 미소를 짓고 있던 그때의 나까지 더해서 이 소중했던 날들을 기억할 것이다.



Asan_Academy

제11기 VOYAGE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박지원



VOYAGE는 울고 웃으며 보냈던 소중한 1년을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어줬던 친구들. 나는 사진에 없다고 아쉬워했던 21명 원생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이 책자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원생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Asan_Academy

나에게 제11기 #사진의 의미는?

이다솜



사진은 단편적이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찰칵'하는 순간을 통해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되살아나는 역할을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한 시간을 예쁘게 담아내어 두고두고 꺼내어 볼 수 있었으면.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싱크탱크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비영리 기관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아산서원
#제11기
#VOYAGE

#퍼낸날 2018년 02월 14일

#퍼낸곳 아산서원

#역은이 아산서원 제11기 원생 기자단

#편집인 아산서원 운영실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asanacademy.org

아 산 서 원

A S A N
ACADEMY

峨 山 書 院

www.asanacademy.org